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자녀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애형¹⁾

조은진²⁾

신나리³⁾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아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만 4,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434명으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ROCESS macro의 모델 4와 15를 활용하여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에 해당하는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여, 부분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아 성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있어서 유아의 성별과 관계없이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유아의 의도적 통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 한계설정 양육행동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1)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2) 교신저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E-mail: manitto33@naver.com)

3)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는 내적, 외적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내적 요인 중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는 그동안 많이 연구되어 왔다. 자기조절 능력은 영아기부터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만 2세경부터 만 3-5세경까지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고(Bronson, 2000; Kopp, 1982), 이는 이후 그들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보이는 행동적, 정서적 반응의 기틀이 되므로(Granlinski & Kopp, 1993), 유아기 이후 사회·정서 발달과 학업 성취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은 유아기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Bronson, 2000). 특히, 부모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확장되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해지고, 다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유아기의 자기조절능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유아의 적응과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겠다.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 행동 중에 관찰되는 조절 능력, 부모가 보고하는 기질적인 의도적 통제, 그리고 인지적 과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실행 주의력 등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Simonds, Kieras, Rueda, & Rothbart, 2007). 그 중 기질적인 의도적 통제는 사회적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을 예측하는, 정서와 관련된 조절 능력의 주요 구성요소로(Eisenberg, Smith, Sadovsky, & Spinrad, 2004) 최근 주목 받고 있다. 의도적 통제는 계

획하고, 실수를 탐지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거나 우세하지 않은 반응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하며(Rothbart & Bates, 2006), 의도적이고 자율적인 조절능력으로, 상황적 요구에 맞게 계획적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Eisenberg & Spinard, 2007).

이러한 의도적 통제는 생후 약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걸음마시기 동안 급속도로 발달한 후 4세경에 이르러 안정성을 보이기 시작하여, 이후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chanska & Knnack, 2003). 고통스럽거나 불쾌한 자극에 주의를 두지 않으려 하는 의도적 통제의 초기 형태인 정향(orienting) 반응은 영아기부터 관찰 가능하나, 주의를 두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고 필요한 반응을 의도적으로 활성화하는 의도적 통제는 맥락에 따라 적절한 정서를 선택해야 하는 유능감을 필요로 한다(최은아, 송하나, 2014). 실제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과 조절 전략을 18개월 영아부터 종단적으로 추적한 Roben, Cole과 Armstrong (2013)에 따르면 48개월이 되었을 때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 표현과 주의전환 등의 조절 전략이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도적 통제와 문제행동(김연재, 최은실, 2020; 임미지, 문혁준, 2014)이나 사회성(이지영, 성지현, 2021), 사회적 유능성(신수아, 정가윤, 2018)과의 연관성이 일관되게 밝혀진 바 있듯이, 의도적 통제는 유아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사회·정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한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심리적 적응을 돕기 위해 의도적 통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환경적 영향에 의해 변화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 유아 외적 환경요인으로서 부모의 영향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는 유아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기에, 자녀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 중 기본심리욕구는 최근 들어 문제해결 및 동기 측면에서 주목받는 특성에 해당한다.

기본심리욕구는 Deci와 Ryan(2000)의 자기결정이론에 바탕을 둔 개념이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는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욕구로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심리적 욕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심리적 욕구 중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로는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의 욕구가 있으며, 이를 기본심리욕구로 명명하였다(Ryan & Deci, 2000). 자율성(autonomy)은 개인이 자신의 의지, 주체성, 자발성을 갖고 행동하는 정도를 뜻하며, 자신의 진정한 관심과 가치관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한소영, 신희천, 2010), 자신이 행동의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을 의미한다(Deci & Ryan, 2000). 유능성(competence)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하는 느낌으로, 개인이 습득한 기술이나 역량이 아니라 자신이 환경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

다는 내부의 느낌, 즉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관계성(relatedness)은 타인을 돌보고 돌봄 받는 느낌으로, 안정적인 관계 획득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Deci & Ryan, 2002).

특히 Deci와 Ryan(1985)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을 두었는데,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에 대한 만족 경험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 때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자신의 행동을 보다 적절하고 역량 있게 통제하고 조절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Deci & Ryan, 2000). 실제로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의 욕구들이 지속적으로 충족될 때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결정성이 증가하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지지되고 있다(안도희, 박귀화, 정재우, 2008; 윤성민, 2014; 한소영, 신희천, 2010). 이에 대해 Vansteenkiste와 Ryan(2013)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은 개인을 성장시켜 적응 행동을 향상하도록 하는 반면, 기본심리욕구가 좌절되는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안녕감과 우울, 분노와 같은 정신병리적 특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는 유아기 자녀의 자기조절, 특히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기본심리욕구를 구성하는 자율성과 긍정적 대인관계 등은 심리적 안녕감을 대표하는 특성으로(Ryff, 1989), 자녀의 자기조절력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서 일관되게 밝혀진 바 있다(오소영, 이한우, 2011; 진연화, 이종연, 2009; 최진희, 2009; Denham & McKinley, 1993). 기본심리욕구를 구성하는 또 다른 특성인 어머니의 유능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긍정적인 또래관계 및 사회적 기술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호준, 정영숙, 1993; Dumas & LaFreniere, 1993)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유아의 의도적 통제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기본심리욕구의 요소 중 유능성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양육 효능감으로 구체화되는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력이 높은 것은 일관되게 지지되는 연구 결과인 바(남궁령, 2014; 백지희, 2017; 윤서희, 성지현, 2014; 이화선, 손수민, 2017; 조영숙, 이양희, 2009; Bates et al., 2020),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행동적 특성으로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Lengua, Homorado, & Bush, 2007; Olson, Bates, Sandy, & Schilling, 2002).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Schaefer(1961)가 애정-거부, 자율-통제로 양육태도를 구분한 이래 어머니의 온정성과 반응성 또는 강압성과 거부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김신정, 김영희, 2007). 이에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관련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탐색한 선행연구들(배윤진, 임지영, 2014; 이미

나, 강수경, 김민정, 2018) 또한 어머니의 애정과 격려 또는 통제 등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가정 내 자녀수가 급감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필요 이상의 관심과 보호로 인해 자녀의 행동을 과도하게 개입하여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허용하는 양육행동이 주목받게 되었다(변수빈, 신나리, 2021). 이러한 높은 과보호 또는 허용 수준으로 대표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가정 내 한계설정이 없는 것으로서,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김성희, 정옥분, 2011; 김효정, 이희선, 2015). 반면, 어린 자녀가 순응하지 않을 때 어머니가 일관적으로 한계설정을 하는 양육행동은 자녀의 의도적 통제 발달을 돕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재희, 2020; Lengua et al., 2007). 이는 어머니가 합리적인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양육행동이 유아의 내적 통제 능력을 향상시켜, 의도적 통제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보호/허용 양육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의도적 통제 발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탐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박태자, 김미옥과 천성문(2016)은 외현화 문제행동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통해 기본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킨 결과, 양육행동에 변화가 나타나 긍정적 양육행동 증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이 조절적인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부모가 효율적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선행되어야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명소, 김혜원과 차경호(2001)는 자율성이나 긍정적 관계성 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경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조절력 및 결정력을 높여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의도적 통제 발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의도적 통제는 생애 초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시켜야 할 중요 과제로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자녀의 의도적 통제의 직·간접적인 선행요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즉,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된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여 자녀의 의도적 통제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같은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주로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로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도적 통제의 경우만 3세를 전후로 빠르게 향상하기 시작하여만 4세에 이르러 안정화되는 바(오정순, 신나리, 2018; Kochanska & Knaack, 2003; Kochanska et al., 2000; Roberts & DelVecchio, 2000), 후기 유아기 자녀에게 미치는 어머니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단, 이러한 모형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 특성의 영향력은 차이

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있어서 성차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일반적으로 여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남아에 비해 높으며(배운진, 임지영, 2014; Kochanska & Knaack, 2003), 행동과 주의를 더 잘 조절하기 때문이다(문영경, 2014). 이러한 성차는 어머니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 또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배운진과 임지영의 연구 결과(2014)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나, 애정적인 양육행동의 경우 여아와 남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이 비슷하지만,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남아가 여아보다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아졌다.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최정은과 이소연의 연구(2017)에서도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한해 자녀의 성에 따른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태도 또한 자녀의 성에 따라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게 한다. 한편 박소영(2006)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차가 있음을 밝혀,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의 성별이 조절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에 따라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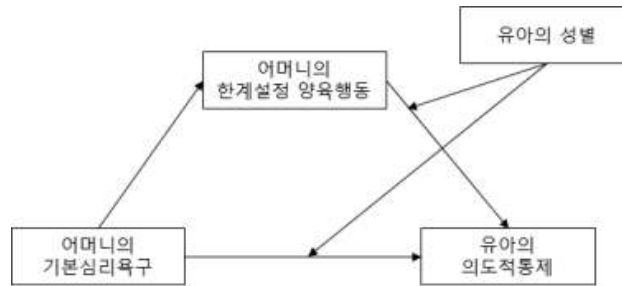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심리적, 행동적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그림 1 참조)은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는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기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기 자녀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의도적 통제가 개인의 특성으로 안정화되는 만 4세와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434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 연령의 평균은 38.09세($SD = 3.82$)로, 30대가 6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0대(35.0%), 20대(1.4%), 50대(0.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5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26.5%),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12.9%), 고등학교 졸업(8.5%)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은 사무직(46.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업주부(34.1%), 전문직(12.9%), 판매 서비스직(2.5%), 기타(3.0%), 생산 근로직 및 단순 노무직(0.9%), 관리직(0.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이 되는 유아기 자녀의 연령은 만 5세(50.7%)와 만 4세(49.3%)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고, 성별은 남아(53.5%)가 여아(46.5%)보다 약간 많았다. 가구소득은 600만원 이상(28.8%)이 가장 많았고, 500만원 대(23.3%), 400만원 대(17.3%), 200만원 대(7.6%)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유아의 의도적 통제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Rothbart(1996)가 개발

한 Child Behavior Questionnaire(CBQ)를 이경옥(2004)이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 중 하위차원에 해당하는 의도적 통제 27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주의 맞추기(9 문항), 억제통제(13문항) 및 주의 전환(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제작된 문항을 어머니가 평정하는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대표적인 문항의 예로 ‘누군가 안 돼 라고 하면 쉽게 활동을 그만 둔다’ 등을 들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 맞추기, 억제 통제, 주의 전환을 합산한 총점으로 의도적 통제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는 Ilardi, Leone, Kasser와 Ryan(1993)이 개발하고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율성(6문항), 유능성(6문항), 관계성(6문항)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 문항의 예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통제받고 억압을 받는다고 느낀다’, 유능성 문항의 예로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낀다’, 관계성 문항의 예로 ‘나는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가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자율성 .84, 유능성 .80, 관계성 .87이었다.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박주희(2001)가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 중 한계설정 하위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계설정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며 행동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총 8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어머니가 보고하였다. 문항의 예로 ‘나는 아이가 정해진 취침시간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나는 아이가 친구와 놀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는다’ 등을 들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한계설정 양육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CBNU-202110-HR-0191)의 승인을 받은 후 전국 규모의 패널을 구축하고 있는 온라인 리서치 패널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친 후,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된 본조사는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등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연구 설명서를 패널에게 이메일로 안내한 후, 설문 참여에 온라인 동의한 경우 설문 링크에 연동되어 웹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기술통계와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매개효과와 유아의 성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모델 4와 1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표본 추출은 5,000번 시행하였고,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의 평균은 하위차원에 따라 4.19 ~ 4.59($SD = .68 \sim .76$),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3.59($SD = .57$), 의도적 통제는 4.74($SD = .61$)로 나타났다. 한편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들은 평균 4.20 ~ 4.60($SD = .73 \sim .81$),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3.66($SD = .50$), 의도적 통제는 4.93($SD = .54$)로 나타나,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는 자녀의 성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여아가 남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

표 1.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N = 434)

구분	①	②	③	④	⑤	M	SD
① 모 자율성	1.00	.38***	.42***	.20**	.31***	4.60	.81
② 모 유능성	.44***	1.00	.57***	.32***	.25***	4.20	.73
③ 모 관계성	.49***	.53***	1.00	.14	.30***	4.48	.73
④ 모 한계설정	.15*	.31***	.25***	1.00	.23**	3.66	.50
⑤ 유아 의도적 통제	.39***	.35***	.33***	.36***	1.00	4.93	.54
M	4.59	4.19	4.50	3.59	4.74		
SD	.75	.76	.68	.57	.61		

주. 1. 어머니 기본심리욕구는 6점, 어머니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5점, 유아 의도적 통제는 7점 척도임. 대각선 아래는 남아, 대각선 위는 여아 집단의 수치임. 남이는 232명, 여아는 202명임.

* $p < .05$. ** $p < .01$. *** $p < .001$.

였다.

다음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높을수록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어머니가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VIF 값은 1.00에서 1.57로 변인들은 서로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본 분석에 앞서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의도적 통제 수준과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 수준에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2 참조). 그 결과,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여아에게서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반면, 유아의 의도적 통제는 남녀 유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 = -3.38, p < .01$), 여아의 의도적 통제가 남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 한계설정 양육행동

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으로 구분되는 바, 이를 각각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자율성,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 = .18 \sim .23, p < .001$), 어머니의 자율성, 유능성과 관계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의도적 통제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는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율성이 높고($B = .12, p < .001$), 유능성이 높을수록($B = .23, p < .001$), 그리고 관계성이 높을수록($B = .15, p < .001$) 한계설정 양육행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B = .26 \sim .29, p < .001$),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있어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자율성, 유능성과 관계성이 높을수

표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차이 ($N = 434$)

구분	남	여	t
	$M(SD)$	$M(SD)$	
모 한계설정 양육행동	3.59(.57)	3.66(.50)	-1.19
유아 의도적 통제	4.74(.61)	4.93(.54)	-3.38**

** $p < .01$.

표 3.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경로	<i>B</i>	<i>SE</i>	<i>t</i>	LLCI	ULCI	<i>R</i> ²	<i>F</i>
모 자율성 모형	모 자율성 → 모 한계설정	.12	.03	3.56***	.05	.18	.03	12.67***
	모 자율성 → 유아 의도적 통제	.23	.03	6.84***	.16	.29	.19	49.66***
	모 한계설정 → 유아 의도적 통제	.29	.05	5.99***	.19	.38		
모 유능성 모형	모 유능성 → 모 한계설정	.23	.03	6.90***	.16	.29	.10	47.60***
	모 유능성 → 유아 의도적 통제	.18	.04	4.87***	.11	.25	.15	36.82***
	모 한계설정 → 유아 의도적 통제	.26	.05	5.18***	.16	.37		
모 관계성 모형	모 관계성 → 모 한계설정	.15	.04	4.17***	.08	.22	.04	17.37***
	모 관계성 → 유아 의도적 통제	.22	.04	5.72***	.14	.29	.16	41.82***
	모 한계설정 → 유아 의도적 통제	.29	.05	5.88***	.19	.38		

*** $p < .001$.

록 유아기 자녀의 의도적 통제를 증진시키며, 어머니가 스스로 자율적이고 유능하다고 느끼며 주변사람들과 관계를 잘 할수록 자녀를 대상으로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자녀가 의도적 통제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의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자율성과 유능성 및 관계성이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간

접효과는 각각 .03, .06, .04로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확인되었다.

2.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odel 15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 4. 어머니의 유능성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관계에서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간접효과 유의성

구분	<i>B</i>	<i>SE</i>	LLCI	ULCI
모 자율성의 간접효과	.03***	.01	.01	.06
모 유능성의 간접효과	.06***	.02	.03	.09
모 관계성의 간접효과	.04***	.01	.02	.07

*** $p < .001$.

표 5.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의 조절효과

구분	독립변수	종속변수	<i>B</i>	<i>SE</i>	<i>t</i>	LLCI	ULCI	<i>R</i> ²	<i>F</i>
모 자율성 모형	모 자율성	모 한계설정	.12	.03	3.56***	.05	.18	.03	12.67***
	모 자율성(X)		.27	.05	5.94***	.18	.36		
	모 한계설정(M)		.34	.06	5.50***	.22	.46		
	성별(W)	유아 의도적 통제	.17	.05	3.40**	.07	.27	.22	23.73***
	X × W		-.09	.07	-1.36	-.22	.04		
	M × W		-.14	.10	-1.47	-.33	.05		
모 유능성 모형	모 유능성	모 한계설정	.23	.03	6.90***	.16	.29	.10	47.60***
	모 유능성(X)		.21	.05	4.35***	.12	.31		
	모 한계설정(M)		.30	.07	4.58***	.17	.43		
	성별(W)	유아 의도적 통제	.17	.05	3.32**	.07	.27	.17	17.90***
	X × W		-.07	.07	-.96	-.21	.07		
	M × W		-.11	.10	-1.10	-.32	.09		
모 관계성 모형	모 관계성	모 한계설정	.15	.04	4.17***	.08	.22	.04	17.37***
	모 관계성(X)		.23	.05	4.34***	.13	.34		
	모 한계설정(M)		.32	.06	5.04***	.20	.45		
	성별(W)	유아 의도적 통제	.18	.05	3.42**	.18	.28	.19	19.75***
	X × W		-.03	.07	-.40	-.18	.12		
	M × W		-.11	.10	-1.09	-.30	.09		

주. 성별의 기준집단은 남아임.

** $p < .01$. *** $p < .001$.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으로 구분되는 바,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자율성과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매개변수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자율성이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2$, $p < .001$). 종속변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

니 자율성($B = .27$, $p < .001$)과 매개변수인 어머니 한계설정 양육행동($B = .34$, $p < .001$), 그리고 조절변수인 성별($B = .17$, $p < .01$)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 자율성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자율성과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

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유능성과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매개변수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유능성이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3, p < .001$). 종속변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 유능성($B = .21, p < .001$)과 매개변수인 어머니 한계설정 양육행동($B = .30, p < .001$), 그리고 조절변수인 성별($B = .17, p < .01$)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 유능성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유능성과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관계성과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매개변수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관계성이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5, p < .001$). 종속변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 관계성($B = .23, p < .001$)과 매개변수인 어머니 한계설정 양육행동($B = .32, p < .001$), 그리고 조절변수인 성별($B = .18, p < .01$)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 관계성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관계성과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아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우선,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관심과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고 느끼고,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효율성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느끼고 연결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 또한 의도적이고 자율적인 조절능력이 높아져 의식적으로 정서와 행동을 잘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의 조절능력을 증진시킴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오소영, 이한우, 2011; 최진희, 2009)를 지지하는 것이며, 가족 내 누적적인 위험 요소가 만 3세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초기치 및 발달

의 성장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Lengua 등의 연구 결과(2014)와도 맥을 같이한다. 기본심리욕구 이론에서는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면 심리적 안녕감이 형성되고, 이러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심리적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바(Ryan & Deci, 2000), 어머니 본인의 심리적인 만족감 자체가 유아에게도 안정감을 주어 자신의 목표와 사회적 기대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유능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는 한계설정 양육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를 구성하는 자율성, 유능성 및 관계성이 충족될 때, 자녀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양육효능감이 높으며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때, 자녀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수용하며 바람직한 규칙을 알려주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며(양은호, 최혜순, 2013), 설명적이고 자율성을 촉진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박서영, 박성연, 2007),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통제적이거나 거부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진, 박성연, 임희수, 2009). 기본심리욕구는 심리적 안녕감과 연관이 있는 바(안도희 등, 2008; 한소영, 신희천, 2009), 본 연구의 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경우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낼 수 있다고 한 Ryff와 Singer(1998)의 관점을 지

지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한 Belsky(1984)와 Abidin(1992)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내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이 어떠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를 맺을 때, 자녀인 유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명제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심리적 요소인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갖도록 하여,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계설정 양육행동은 하루 중 취침시간을 정해 두거나 TV 시청 시간을 조절하는 등 유아의 일상생활에서 일련의 규칙을 정하고 제한을 설정하여, 자녀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유아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정해진 조건이 종료되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반응성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며(이화선, 손수민, 2017),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고(이희연, 장경은, 2015), 어머니가 한계를 설정하고 규칙을 형성하는 양육이 유아의 의도적 발달을 촉진하여 외현화 행동을 줄일 수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김재희,

2020)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주로 온정, 반응성, 논리적 설명, 강압, 거부, 방임 등의 양육행동에 초점이 되어 연구되어 온 반면, 한계설정과 같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연구를 확장하여 이론적 근거를 보충하였다는 의미가 있겠다. 더불어 과거에 비해 자녀들을 과보호하고 허용하는 양육행동이 증가한 이 시점에서 한계설정 양육행동이 기여하는 바를 제시함으로써, 부모교육에서 다뤄야 할 양육행동 및 기술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한계설정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즉, 자신의 자율성과 유능성 및 관계성을 더 높게 경험하는 어머니는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며 행동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양육행동을 더 높게 보임으로써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본 연구와 같이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정서조절과 사회적 능력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 양은호와 최혜순의 연구 결과(2013)에 따르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영주(2010)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대처양식이 영향력을 매개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와 관련된 요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영아의 의도적 통제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한 연구 결과(문영경, 2019)와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낮은 경우에 어머니의 높은 한계설정이 유아의 높은 수준의 의도적 통제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 연구결과(김재희, 2020), 어머니의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 등으로 인한 낮은 심리적 안녕감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자신감 위축과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최진희, 2009) 등은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이들 연구 중 대부분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힌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계설정 양육행동 외의 다른 매개변인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좀 더 탐색해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기본심리욕구와 한계설정 양육행동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 간의 관계에 성별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도적 통제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특성은 자녀가 갖는 개인적 특성과는 무관함을 의미한다(배윤진, 임지영, 2014; 이유진, 정은정, 2013; Kochanska et al., 2000, Kochanska & Knaak, 2003; Lemery-Chalfant, Doelger, & Goldsmith, 2008).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의도적 통제를 비롯한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칠 때 자녀의 성별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임은정, 김수영, 2011; 정문자, 여종일, 2010; Chang, Olson, Sameroff, & Sexton, 2011)의 결과와는 일관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

의도적 통제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부모의 온정, 거부와 통제 등의 양육행동을 살펴보았다. 이는 점에서,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형에 따라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의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만을 살펴보아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평가하는 대상을 어머니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측정함에 있어 과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 못하고 어머니 보고만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 외에 아버지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고,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측정함에 있어 교사도 함께 보고하거나 실험 과제를 통해서도 측정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단일 차원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서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의도적 통제 발달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행동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향상시키는 어머니의 특성과 역할을 탐색하고 확인할 수 있었기에, 가정에서 의도적 통제 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성희, 정옥분 (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69-92.
-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연재, 최은실 (2020).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공감능력과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 효과. *놀이치료연구*, 24(2), 19-33. <https://doi.org/10.32821/JPT.24.2.2>
- 김은진, 박성연, 임희수 (2009). 아동의 성 및 기질, 남편의 양육지지와 어머니의 심리적복지감이 걸음마기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9), 71-81.
- 김재희 (2020). 어머니의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양육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3), 99-117.
<https://doi.org/10.14698/jkce.2020.16.03.099>
- 김효정, 이희선 (2015). 어머니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의 스마트폰기 과몰입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5(4), 113-134.

- 남궁령 (2014).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정서표현성, 어머니 양육 효능감, 유아자기조절력 간의 관계 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19(3), 131-157.
- 문영경 (2014). 유아의 의도적 통제, 교사가 지각한 교사-유아관계,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9(5), 367-386.
- 문영경 (2019).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종단적 발달경로: 영아기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과 영아기 의도적 통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7(3), 431-444.
<https://doi.org/10.6115/fer.2019.032>
- 박서영, 박성연 (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2), 29-51.
- 박소영 (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련 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태자, 김미옥, 천성문 (2016).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외현화 문제행동아동 부모의 양육행동, 기본심리적 욕구만족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2(3), 169-191.
- 박호준, 정영숙 (1993).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 및 자녀에 대한 수용성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1), 1-15.
- 배윤진, 임지영 (2014).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유아의 의도적 통제: 유아 성별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2), 77-97.
<https://doi.org/10.8466/JKHMA.2014.32.2.77>
- 백지희 (2017). 유아 관련 변인과 어머니의 영역별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7(5), 387-411.
<https://doi.org/10.18023/kjece.2017.37.5.017>
- 변수빈, 신나리 (2021). 어머니의 과보호와 유아의 놀이 중 또래상호작용: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1), 105-124.
<https://doi.org/10.14698/jkce.2021.17.01.105>
- 신수아, 정가운 (2018). 유아-교사의 관계가 유아의 정서-행동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통제 조절효과 분석. *인간발달연구*, 25(2), 19-34.
<https://doi.org/10.15284/kjhd.2018.25.2.19>
- 안도희, 박귀화, 정재우 (2008). 자율성지지, 기본적 욕구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5), 315-338.
- 양은호, 최혜순 (2013).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3(3), 143-162.
- 오소영, 이한우 (2011).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자녀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연구. *심리행동연구*, 3(1), 63-79.
- 오정순, 신나리 (2018).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의도적 통제를 중심으로. *생애학회지*, 8(2), 21-45.

- <https://doi.org/10.30528/jolss.2018.8.2.002>
 윤서희, 성지현 (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역할. 아동학회지, 35(4), 199-222.
<https://doi.org/10.5723/KJCS.2014.35.4.199>
 윤성민 (2014). 성인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자아분화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4), 757-779.
<https://doi.org/10.13049/kwfa.2014.19.4.757>
 이경옥 (2004). 유아 기질 척도(CBQ)의 타당화를 위한 기초 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01-120.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2(4), 157-174.
 이미나, 강수경, 김민정 (2018). 부모의 의도적 통제, 사회적 양육행동,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교사관계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8(3), 289-308.
<https://doi.org/10.18023/kjece.2018.38.3.012>
 이유진,정은정 (2013). 학령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31-249.
 이지영, 성지현 (2021).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유아-교사 관계가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2), 87-112.
<https://doi.org/10.35574/KJDP.2021.6.34.2.87>
 이화선, 손수민 (201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2(1), 249-271.
<https://doi.org/10.20437/KOAECE22-1-10>
 이희연, 장경은 (201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에 대한 유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육아지원연구, 10(1), 5-34.
<https://doi.org/10.16978/ecec.2015.10.1.001>
 임미지, 문혁준 (2014).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인간발달연구, 21(1), 159-179.
 임은정, 김수영 (201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력 및 관련 변인들과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관계분석. 유아교육연구, 31(4), 5-30.
<https://doi.org/10.18023/kjece.2011.31.4.001>
 전영주 (2010).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 행동문제의 관계: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대처양식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문자, 여종일 (2010). 수용적 부모양육이 아동의 사회불안 및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성별조절효과를 통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8(9), 1-9.
 조영숙, 이양희 (2009).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련성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7(6), 51-66.
 진연화, 이종연 (2009).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30(2), 1-18.
 최은아, 송하나 (2014).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작업기억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성

- 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아동학회지*, 35(6), 65-78.
<https://doi.org/10.5723/KJCS.2014.35.6.65>
- 최정은, 이소연 (2017).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통제와 부정적 정서의 다중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3(3), 151-171.
<https://doi.org/10.33770/JEBD.33.3.8>
- 최진희 (2009).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소영, 신희천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39-464.
- 한소영, 신희천 (2010).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경험과 상담성과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22(4), 901-929.
- Abidin,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 Bates, R. A., Salsberry, P. J., Justice, L. M., Dynia, J. M., Logan, J. A. R., Gugi, M. R., & Purtell, K. M. (2020). Relations of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self-efficacy to the self-regulation of infants in low-income hom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8), 2330-2341.
<https://doi.org/10.1007/s10826-020-01763-9>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https://doi.org/10.2307/1129836>
- Brons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ew York: Guilford Press.
- Chang, H., Olson, S. L., Sameroff, A. J., & Sexton, H. R. (2011). Child effortful control as a mediator of parenting practices on externalizing behavior: Evidence for a sex-differentiated pathway across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scho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1), 71-81.
<https://doi.org/10.1007/s10802-010-9437-7>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1
- Deci, E. L., & Ryan, R. M. (2002). Self-determination research: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In E. L. Deci & R. M.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 431-441).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nham, S. A., & McKinley, M. (1993). Sociometric nominations of preschoolers: A psychometric analysi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4(2), 109-122.
https://doi.org/10.1207/s15566935eed0402_3
- Dumas, J. E., & LaFreniere, P. J. (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s of

- support or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6), 1732-1754.
<https://doi.org/10.1111/j.1467-8624.9999.tb04210.x>
- Eisenberg, N., Smith, C. L., Sadovsky, A., & Spinrad, T. L. (2004). Effortful control: Relations with emotion regulation, adjustment, and socialization in childhood. In R. F. Baumeister & K. D. Vohs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pp. 259-282). New York: Guilford Press.
- Eisenberg, N., & Spinard, T. L. (2007). Relation of maternal socialization and toddler's effortful control to children's adjustment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 Psychology*, 43(5), 1170-1186.
<https://doi.org/10.1037/0012-1649.43.5.1170>
- Granlinski, J. H., & Kopp, C. B. (1993). Everyday rules for behavior: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3), 573-584.
<https://doi.org/10.1037/0012-1649.29.3.573>
- Ilardi, B. C., Leone, D., Kasser, R., & Ryan, R. M. (1993). Employee and supervisor ratings of motivation: Main effects and discrepancies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and adjustment in a factory sett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1), 1789-1805.
<https://doi.org/10.1111/j.1559-1816.1993.tb01066.x>
- Kochanska, G., & Knack, A. (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6), 1087-1112.
<https://doi.org/10.1111/1467-6494.7106008>
- Kochanska, G., Murray, K. T.,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20-232.
<https://doi.org/10.1037/0012-1649.36.2.220>
- Kopp, C. B. (1982).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https://doi.org/10.1037/0012-1649.25.3.343>
- Lemery-Chalfant, K., Doelger, L., & Goldsmith, H. H. (2008). Genetic relations between effortful and attentional control and symptoms of psychopathology in middle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4), 365-385.
<https://doi.org/10.1002/icd.581>
- Lengua, L. J., Homorado, E., & Bush, N. R. (2007). Contextual risk and parenting as predictors of effortful control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40-55.
<https://doi.org/10.1016/j.appdev.2006.10.001>
- Lengua, L. J., Kiff, C., Moran, L., Zalewski, M., Thompson, S., Cortes, R., & Ruberry, E. (2014). Parenting mediates the effects of income and cumulative risk on the development of effortful control. *Social Development*, 23(3), 631-649.
<https://doi.org/10.1111/sode.12071>

- Olson, S. L., Bates, J. E., Sandy, J. M., & Schilling, E. M. (2002). Early developmental precursors of impulsive and inattentive behavior: From infancy to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4), 435-447.
https://doi.org/10.1111/1469-7610.00035
- Roben, C. K., Cole, P. M., & Armstrong, L. M. (2013).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language skills, anger expression, and regulatory strategie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84(3), 891-905.
https://doi.org/10.1111/cdev.12027
- Roberts, B. W., & DelVecchio, W. F. (2000). The rank-order consistency of personality traits from childhood to old age: A quantitative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26(1), 3-25.
https://doi.org/10.1037/0033-2909.126.1.3
- Rothbart, M. K. (1996).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Oregon, USA.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99-166). New York: Wiley.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Ryff, C. D., & Singer, B. (1998). The contours of positive human health. *Psychological Inquiry*, 9(1), 1-2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0901_1
- Schaefer, E. S. (1961). Converging conceptual models for maternal behavior and for child behavior. *Acta Psychologica*, 19, 397-401.
https://doi.org/10.1016/S0001-6918(61)80171-6
- Simonds, J., Kieras, J. E., Rueda, M. R., & Rothbart, M. K. (2007). Effortful control, executive atten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in 7-10-year-old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22(4), 474-488.
https://doi.org/10.1016/j.cogdew.2007.08.009
- Vansteenkiste, M., & Ryan, R. M. (2013). On psychological growth and vulner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need frustration as a unifying principle.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3(3), 263-280.
https://doi.org/10.1037/a0032359

1 차원고접수 : 2022. 01. 10.

수정원고접수 : 2022. 02. 15.

최종게재결정 : 2022. 03. 23.

Effects of Maternal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Limit-Setting Parenting on Effortful Control of Their Young Child: The Moderating Effect of Child's Gender

Yu, Aehyung

Jo, Eunjin

Shin, Nary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whether maternal limit-setting parenting mediates the effects of their mother's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effortful control of their child aged 4 or 5. Also, moderating effects of children's gender on the paths from maternal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limit-setting parenting to children's effortful control were examin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434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on-line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SPSS PROCESS macro 4.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macro model 4 and 15 analyses showed that mother's basic psychological needs have a direct effect on their child's effortful control. Second, mother's limit-setting parenting behaviors partially mediate the effect of mother's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ir child's effortful control. Third,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child's gender on the influences of the mother'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the limit-setting parenting behavior on their child's effortful control. This study shows that the mother'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limit setting parenting behaviors are important in the effortful contro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gender.

Keywords: children's effortful control, maternal basic psychological needs, limit-setting parenting